KOR VOICEYE
voiceye.com

역사교육의 가치는 비판적 사고를 하는 데 있다

글 **김한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kimhj@knue.ac.kr

역사 지식의 가치는 역사적 사실 자체가 사회에 미친 중요성과 정보의 접근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주는 우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 정부와 보수층은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공격한다. 이에 맞서 역사학계나 교사들은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역사교육을 통제하고 자신의 구미에 맞는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양측의 주장은 언론 등에 이미 널리 소개되었으므로, 어느 편이 옳은지 여기서 따지지 않기로 한다. 다만 국정화를 둘러싼 이런 논란의 결과가 가져올 부작용이 우려스럽다. 그것은 역사교육에 대한 거부감이나 혐오감이다. 혹시 역사를 깊이 공부하고 사고하는 것은 공연히 귀찮은 논란에 끼어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냥 역사적 사실을 필요한 만큼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지 않을까? 2017년 수능에서 한국사가 필수가 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역사교육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된다. 역사를 이런 식으로 대할 때 역사교육의 가치는 설 자리를 잃는다.

역사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경험하게 한다

'전쟁과 갈등의 20세기를 청산하고 맞이하는 평화와 희망의 21세기'라는 기대감으로 출발한 2000년대에 접어들자 일본 우익의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한국 사회를 분노로 몰고 가더니, 이어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시아의 21세기는 이렇게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되었다. 동아시아 역사분쟁은 한국 역사교육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이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어떤 학생이 3·1운동을 '삼점 일 운동'이라고 읽었다고 언론은 개탄한다. 아마도 자극적 기사를 좋아하는 언론의 과장된 보도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보도는 끊이지 않는다. 2013년에는 성인의 3분의 1, 중·고등학생의 절반 정도가 6·25전쟁이 일어난 연도를 모른다는 보도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6·25전쟁이 몇 년에 일어났는지 왜 반드시 알아야 할까? 물론 역사적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역사지식이 있어야 자기 나름의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 역사의식도 역사지식을 바탕으로 생겨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역사지식이 가치가 있으며, 그것의 가치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역사지식의 가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역사적 사실 자체가 사회에 미친 영향의 중요성이다. 이 점에서 보면 6·25전쟁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한국현대사에 결정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정보의 접근성이다. 인간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가치가 있는 지식은, 다른 수단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식이다. 그러나 후자의 가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1~2분

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이내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6·25전쟁에 대한 지식은 매우 가치 있지만, 그 중 전쟁이 몇 년에 일어났는지가 가장 중요한 지식인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역사교육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 우리는 역사를 왜 알아야 하는 것일까?

역사가 다루는 사실은 인간의 행위이다. 인간의 행위는 지난날 어떤 사람이 선택을 한 것이다. 그 선택은 역사적 상황에 대한 판단과 행위의 목적을 종합한 결과이다. 과학의 사실은 하나의 원인이 있으면 하나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지만 역사적 사실은 원인이 하나여도 결과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그것은 상황에 대한 판단과 추구하는 목적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고국원왕 때 고구려는 위기에 처했다. 연의 침공을 받았으며, 백제와 싸우다 왕 자신이 죽고 말았다. 왕위를 계승한 소수림왕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대외전쟁보다는 내정을 다지는 길을 택했다. 율령을 반포하고 행정구역을 정비했다. 태학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불교를 받아들여 사상을 정비했다. 다른 사람이 왕이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 국방력을 강화한다든지, 외교정책을 바꿀 수도 있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소수림왕의 선택을 공부한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평가한다. 이처럼 사고 경험을 하는 것이 역사교육이다.

역사교육이 지향하는 사고는 비판적 사고이다. 과거 행위자의 생각이나 역사가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평가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역사를 공부한다면 소수림왕의 선택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이 적절한지 평가해야 한다. 역사가가 이를 적절히 서술하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고가 비판적 사고이다.

비판적 사고가 중요한 것은 미래를 전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적 변화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한다. 수학이나 과학처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과거이며 예측하는 미래이다. 과거를 공부해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전망은 과거를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역사교육에서 과거와 미래는 상호작용을 한다. 과거의 판단에 대한 해석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의 전망이 과거 해석의 범위를 제한한다. 이처럼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 역사이다.

미래의 전망이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실천성을 주기 때문이다. 역사를 왜 공부하는지 질문을 받을 때 자주 드는 사례로 프랑스의 유명한 역사학자 마르크 블로크의 선택이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역사학자였던 그는 망명을 해서 역사연구를 계속하라는 주변의 권고를 뿌리치고 독일 점령하의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다가 처형당했다. 그가 이런 활동을 한 것은 프랑스가 승리한다는 미래 전망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한 예측이었다. 블로크의 전망대로 프랑스는 결국 독일을 이겼고, 레지스탕스 활동은 거기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